

가족간호 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변영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I. 서론

가족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가족은 구성원 건강문제의 발생이나 건강의 유지·증진 및 회복에 중요한 맥락으로 또는 간호의 대상인 실제적 단위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우기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가족단위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건강전달체계로서의 가정간호사업의 정착에 앞서 가족간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간호학 분야에서 가족연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이라는 복합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념의 조작화와 연구방법상의 문제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족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간호학에서 가족연구의 활성화, 가족간호의 이론발달 그리고 실무와 가족간호 관련 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유용성을 갖는 연구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다른 간호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목적은 건강문제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기술, 설명, 예측하는 Middle-Range Theory를 개발시키고 가족에 대한 지식확대 및 재생산에 있다. 따라서 가족간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

둘째, 생활 사건이나 변화에 대한 가족과 그 구성원의 반응을 조사하고, 설명하는 것,

셋째,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

넷째, 가족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는 것,

다섯째, 가족의 건강이나 건강관리 환경을 확인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가족연구의 방법론적 쟁점은 연구의 종류, 자료의 출처, 자료수준, 도구, 표집, 자료분석 등으로, 이를 논하기에 앞서 가족 현상에 대한 연구의 근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가족에 관한 연구를 계획할 때에는 우선 가족 연구(Family Research)인지 가족관련연구(Family-Related Research)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가족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고 연구하는 것인 반면에 가족관련 연구는 가족구성원들의 자료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지각, 반응 및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가족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합(합)으로 가족을 설

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Fisher, 1982). 다시말해 가족연구에서는 가족 전체가 분석이며 이때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의 합(합) 이상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재창조된 행위나 반응을 주제로 다루는 것(Ranson, 1984)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족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수술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불안에 따른 가족의 대처행위 유형이 어떠한가가 연구문제로 설정될 수 있고, 가족관련연구에서는 부인의 수술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연구문제의 일예가 될 수 있다. Wakefield, Allen, Washchuck(1979) 등은 가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논문에서 가족의 개념적, 이론적 기저를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관련연구였다고 보고하였다. Frethmen(1993) 또한 1988년 이후의 간호학 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가족을 단위로 한 연구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족을 분석 단위로 개념화하는 문제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반영 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문제,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과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관련연구는 가족구성원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기여하고, 가족연구는 가족 전체의 반응에 대한 지식 증가로 모두가 가족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이다.

1)가족의 개념화

가족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개념을 조작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Germino와 Feetham(1987)은 1987년 이전에는 가족에 대한 간호연구에서 개념적 틀이나 이론을 사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개념적 틀과 연구설계, 도구, 자료분석간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학에 현존하는 가족이론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심리학에서 도출된 위기, 스트레스, 적응, 애착, 상징적 상호작용, 환자역할이론 등을 이용한 것으로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의 반응을 일부 검증한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란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와 측면을 먼저 고려한 다음 정의를 내려야 한다. (stanhope et al 1984). 지금까지 연구에서 가족을 개념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가족을 체제로 보는 경우로, 가족은 하나의 체제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합(합)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다(Ranson 1983, Rogers 1984, White 1984). 따라서 체제로서 가족을 연구할 경우에는 연구설계나 분석에서 선형 방정식에 의한 것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복합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두번째는 가족을 가족구성원의 환경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가족치료연구(Olson 1986, Greg, Genex, Tamborance 1980)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간호연구에서는 거의 이 개념을 활용하지 않았다(Feetham 1984).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기본 환경이 가족이고, 건강관리체계에 가족이라는 환경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간호학적 접근에 이러한 개념화는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또 다른 개념화는 가족을 건강과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정상 가족보다는 병리적 문제를 가진 가족을 주로 연구하였는데, 분명한 개념화없이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상태나 가족의 반응을 독립이나 종속변수 또는 반대양상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에 대한 개념화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유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가족건강에 대한 개념 또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가족건강개념을 토대로 가족건강 상태의 측정과 효과적인 가족간호 전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utter(1991)는 간호 모델과 가족개념틀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건강관리요구를 가진 가족을 간호하는데 효과적일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Whall & Fawcett(1993)은 간호모델을 가족간호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호모델의 추상적 수준과 대상으로서 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의 가족개념틀과 논리적으로 일치되는 간호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한

편 가족건강은 일반체계이론을 근거로 한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의 적응력으로 (McCubbin & Paterson, 1983)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가족이 적응하고 변화, 증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는 노력을 하였다 (Melto, 1985, Leo, 1983).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개념과 간호모델로부터 가족간호 모델을 연역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속 개발 및 검증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변화하는 우리사회와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가족간호의 이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더 빠른 학문의 발전을 위해 타학문이나 서구의 이론을 차입해 오는 것이 낫다는 논리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나 사상을 반영한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방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논리도 발전을 위한 전제 일뿐 아직 구체화된 가치적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2) 자료수준과 표집

가족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자료의 출처와 수준을 고려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다 (Fisher, 1985). 가족에 관한 연구의 자료출처가 과거에는 주로 가족구성원 한사람에게서 수집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둘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가족관계 및 기능에 대한 공통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Fisher (1982), Fisher, Kokes, Ranson, Phillips & Rudd (1985) 등은 가족현상의 자료에는 개인적, 관계적, 상호작용적 수준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의 각 유형과 그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자료는 가족구성원 한사람으로부터 수집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주요 자료원 (Feethan, 1984) 이었는데, 최근 간호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 자료는 자료제공자 개인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

원의 지각이나 반응, 행위를 일부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족의 관계나 상호작용 및 가족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수준의 자료는 가족의 자료로 고려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Thompson & Walker (1982) 등은 연구질문에 관계 속성을 포함시켜 이를 분석하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수준의 자료는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점과 개발된 기존의 도구가 많아 사용과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가족현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이론적으로 중요할 때 개인수준의 자료는 적절한 것이 된다.

관계적 자료는 둘 이상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 (부-모, 부모-자녀, 자녀-자녀) 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이다. 관계자료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새로운 점수를 산출하여 관계적 자료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적 자료를 관계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점수를 산술평균, 합, 차이, 상관관계수, 등의 (일치) 퍼센트, 회귀, 분산, 요인분석, 구조 모델 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자료는 여러 가족구성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보다는 한 쌍의 공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가족의 사건, 경험, 태도, 속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인식이나 의미를 언급할 수 있는 가족관련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신 경험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동일시 및 유사성 관계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료의 장점으로는 현존하는 여러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점수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해석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즉 이론적으로 중요한 가족구성원의 특성인 나이, 발달상태, 역할, 영향력 등과 같은 특성을 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여도 관계자료에는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Fisher, 1985). 개인점수의 평균이나 합은 구성원간의 관계 양상보다는 총계를 나타낼 수 있다 (Thompson & Walker, 1982). 유사성 점수를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의 유사성을 모두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결정해

야 하므로 이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개인점수에서 전환된 관계자료 점수들은 점수 자체보다는 점수의 양상을 요약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관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관계자료가 개인수준의 자료보다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가족관계나 상호작용의 측정으로부터 나온 자료가 아니므로 해석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석은 개인수준의 자료와 생성된 관계자료 모두를 제시하면서 보고해야 한다.

상호작용적 자료(Transactional data)는 전체로서의 가족단위의 기능과 가족내에 존재하는 의미들의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로 가족연구 설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자가보고법 이외에 면담이나 상호작용, 관찰법(Bavelas, 1984, Fisher, 1985) 또는 이들 방법의 병행을 통해 수집되는 것으로 질적, 양적, 접근이 사용될 수 있다.

양적 접근으로 상호작용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Simulated Family Activity Measure (Straus & Tallman, 1971), Interaction Code (Mishler & Waxler, 1988), Structured Family Interview (Watzlawick, 1966), Family System Stressor Strength Inventory (Berkey, 1991).

또한 게임을 통해 가족들의 행동,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관찰하거나 부호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징, 의미, 행위의 변화 양상과 의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자료의 장점은 포괄적이고, 풍부한 가족의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적 자료는 가족을 하나의 문화적 단위(Schneider, 1980)로 보는 경우, 문화는 인간의 머리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지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상징체계이므로 인간 상호작용을 대화나 행위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가족이 함축하고 있는 통합된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상호작용 자료의 단점은 용어의 문제이다. Transactional이란 용어는 가족치료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Interactional과 유사하여 혼돈을 가져온다는 점이다(Fisher, 1982). 또 다른 단점으로는 관찰 방법의 어려움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가족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친밀감이 없는 가족은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참여 증진의 전략으로 그 가족이 신뢰하는 목사, 교사, 이웃, 의료인 등의 지지를 요청하여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참여의 잇점을 설명하거나 다른 가족의 성공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로는 가족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성인, 노인, 어린이 각각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도구가 어느 발달수준의 누구를 대상으로 고안된 것인가에 따라 표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본 선택에서는 대표성과 표집오차를 줄여야 하며 가족비교연구일 경우 구성원 선정시 부모의 연령, 가족의 발달주기, 결혼상태, 성, 형제순위 등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족 연구자들은 가족단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두세명의 구성원을 표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연구보고서에는 표본 선택의 과정과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Reiss, Gemzalez, Kramer(1960)가 신장질환자 가족연구에서 제시한 표본선택 과정의 예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표본은 신장질환을 가진 환자와 동거하는 가족구성원 2명으로 구성되 가족구성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출하였다: 1) 환자의 배우자, 2)연령이 많은 자녀, 3)혈육, 친척 4)오래 같이 생활했던 사람.

측정에 따른 이러한 난제는 도구 선정, 자료수집 훈련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가족연구시 자료수집자 또는 면접자는 기본적인 조사 훈련 이외에 가족에 대한 이해, 성과 연령,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구성원과의 면담기술, 성장발달수준에 따른 표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필요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의뢰할 수 있는 기술이 반응 효과나 반응율에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를 가진 가족연구는 협력 대상자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오차와 그에 따른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결과의 일반화와 체계적 오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응답 및 거부율이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Kitson, 1982), 이는 가족연구의 비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Kitson(1982)은 응답률(Response Rate)이란 표본에서 참여가족수를 접촉 표본 전체 가족수로 나눈 것으로, 거부율(Refusal Rate)은 접촉 가족중 참여를 거부한 가족수를 접촉한 전체 가족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본중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비교는 표본 오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비교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가족 발달수준, 형제수, 성, 결혼상태 등이 혼동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변수가 설명되어야 한다.

3) 도구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념적, 이론적 틀과 도구와의 불일치이다. 즉 측정하려는 개념과 측정된 것 간의 논리적 연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도구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사업가, 가족생활전문가, 결혼 및 가족 전문의의 입장에서 가족사정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해 왔으나(Speer & Sachs, 1985) 가족 간호를 위한 도구는 거의 없다(Hanson, 1991).

타 학문의 가족개념과 사정도구가 가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가족개념과 사정도구는 가족의 건강관리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

았기 때문에 간호의 영역이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Reutter, 1991).

도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로 외국의 가족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한국 가족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 도구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점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Oliveria와 Reiss(1984)는 가족 결합을 12가지 가족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가족결합력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제시되었으나 가족의 결합력을 측정하려는 다른 도구들간에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들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된다. 두 도구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두도구가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한 가족의 특성이 아니고 동일한 특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낮은 상관관계는 개념측정이 특정한 도구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서 F.E.S(Family Environment Scale) (Moos 1974, Moos & Moos 1976)와 C.S.P(Card Sort Procedure)간에는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F.E.S가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가족의 내적 관계를 측정하고, C.S.P는 가족의 외적 관계에 대한 가족구성원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 두 도구가 가족의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E.S는 사회경제적 상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C.S.P는 사회경제 상태에 대해 독립적이다(Oliveri & Reiss, 1984). 이러한 점이 F.E.S와 C.S.P간에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변량이 낮을 때 상관관계도 낮아진다.

또다른 문제는 자료수집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정의 문제이다. 같은 질문이라도 혼자있을 때와 다른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구성원들의 생각·감정·반응, 관계를 어느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 하는가도 측정에 영향을 준다.

자가보고 질문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기 쉽다. 그러므로 자가보고법은 각 가족구성원이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가족을 단위로 측정하거나 가족에 내재된 문제나 특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 관찰시 비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연구목적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각 구성원 보다는 집단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가보고법과 관찰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자료의 질이 달라 상관관계도 낮고 분석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또다른 문제는 도구의 민감성이다. 질문지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의 순서와 내용이 가족의 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인식의 증가는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변형시킬 수 있다.

관찰이나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연구자의 참여 또한 반응이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자료분석 및 평가

자료분석에는 이론적, 통계적 문제가 있다. 자료분석 방법은 연구의 개념과 연관 되어야 하고 자료 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체계 이론의 가정은 가족구성원, 가족, 환경간의 상호 의존성이다. 이 가정은 관계가 복합적이고 여러 방향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선형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은 가족체계 이론과는 모순이 된다.

또한 관계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론적으로 의미없는 두 가족구성원의 점수를 합산 하여 점수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산 점수는 자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Fisher 1985, Walters, Pittman & Norell 1984). Ferketich와 Verran(1986)은 가족구성원의 점수 분포를 설명하는 분석을 제안하면서, 이는 합산이나 평균점수보다 더 나은 분석이 된다고 하였다. 또다른 분석방법의 예로 로정분석, (Alwim & Hauser, 1975), 정준상관관계, (Godwin, 1985), 연립방정식, cogent 분석 (uphola & strickand, 1989)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Godwin 1985, Lehrwr 1986). 이러한 가족자료의 분석방법은 가족의 반응을 포함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하였지만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수용관계나 상호견인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족구성원의 반응은 가족의 특성에서 이해 되어야 하므로 가족특성이 가족구성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파악해야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분석도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관점이 아닌 총체적인 인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연구의 평가기준으로는 연구의 개념적 틀, 이론,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 및 가족의 기능과 구조의 이해에 대한 지식 확장, 간호실무의 유용성이 포함될 수 있다(Feethan, 1984). 또한 가족의 개념화와 측정, 자료 분석의 일치가 중요하다.

Ⅲ. 결 론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우선 가족에 관한 연구를 계획할 때에는 가족연구인지 가족관련연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개념적 틀, 가족의 정의, 도구, 자료수집 대상, 분석방법 등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를 추구해온 학자들에게 첨단과학에서 제기된 불확실성, 카오스이론 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러한 가족을 연구하는데 학제적 접근 뿐만 아니라 가족간호 실무자와의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을 단위로 분석하는 가족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의 수집방법의 다양화, 개념, 분석방법,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도구의 개발 등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가족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개인 수준의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측정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과 이러한 도구들이 우리나라 가족의 독특한 특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질적, 양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족에 관한, 그리고 가족에 의한 진실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노력해야만 진정한 가족간호 이론의 개발이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간호 연구에서 가족구성원의 세계나 감정을 표현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기준을 제공해주는 신념, 상징, 가치,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어떻게 총체적이면서 분석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가도 계속 탐구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

참 고 문 헌

- Alwin, D. F., & Hauser, R. M. (1975). The decomposition of effects in path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7-47.
- Andrews, M., Bubolz, M., & Paolucci, B. (1980). Ecological approach to study of the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32, 29-49.
- Appelbaum, M., & McCall, B. (1983). Design and analysi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In B.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pp. 415-476). New York: Wiley.
- Bavelas, J. B. (1984). On "Naturalistic" family research. Family Process, 23, 337-341.
- Bell J. M., Watson, W. L. Wright, L. M. (1990), The Cutting Edge of Family Nursing, Canada: The University of Celgory, p40-46.
- Broderick, C. B. (1971). Beyond the five conceptual frameworks: A decade of development in famil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39-159.
- Bubolz, M. M., & Whiren, A. P. (1984). The family of the handicapped: An ecological model for polic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33, 5-12.
- Doherty, W. J., & Campbell, T. L. (1988). Families and health. Newburt Park, CA: Sage.
- Doherty, W. J., & McCubbin, H. (1985). Families and health care: An emerging arena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34, 5-11.
- Drotar, D. (1981). Psychological perspectives in chronic childhood illn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6, 211-228.
- Fawcett, J. (1975). The family as an open system: An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 for nursing.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2, 113-116.
- Feetham, S. L. (1984a). Family research: Issues and directions for nursing. In H. Werley & J. J. Fitzpatrick, (Eds.),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Vol. 2, pp. 3-25). New York: Springer.
- Feetham, S. L. (1984b, November).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or nursing research. Paper presented as Keynote Address at First Wingspread Conference: Advancing Family Research in Nursing, Racine WI.
- Feetham S. L. (1993), The Nursing of Families Theory, Research, education, practice, SAGE.
- Ferketich, S., & Verran, J. (1986). Exploratory data analysis: Introduc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8, 464-466.
- Fisher, L. (1982). Transactional theories but individual assessment: A frequent discrepancy in family research. Family Process, 21, 313-320.
- Fisher, L., Kokes R. F., Ransom, D. C., Phillips, S. L., & Rudd, P. (1985).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eating "relational" family data. Family Process, 24, 213-224.
- Gemino, B. B., & Feetham, S., (1987, October). Measurement in family nursing research: Survey of nurse investigators. Paper presented at Council of Nurse Researchers, International Research Meeting, Arlington, VA.
- Gillis, C. L. (1983). The family as a unit of analysis: strategies for the nurse researche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3), 50-59.
- Godwin, D. G. (1985). Method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1), 9-22.

- Godwin, D.G. (1986). Simultaneous equation techniques revisited: A reply to Lehrer. Family Process, 25, 883-885.
- Greg, M.J., Genel, M., & Tamborlane, W.V. (1980). Psychosocial adjustment of latency-aged diabetics: Determinant and relationship to control. Pediatrics, 65, 69-73.
- Holman, T.B., & Burr, W.R. (1980). Beyond the beyond: The growth of family theory. In S.M.H. & Helms, M.M. Jullian, (1992), Educational for Family Health Care professionals: Nursing as a paradigm, Family relations, 41, 49-53 of family theories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29-741.
- Howard, J. (1978). Families. New York: Simon & Schuster.
- Kantor, D., & Lehr, W. (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 Bass.
- Lasky, P., Buckwalter, K.C., Whall, A., Lederman, R., Speer, J., McLane, A., King, J.M., & White, M.A. (1985). Developing an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family dynamic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 40-53.
- Lehrer, E.L. (1986). Simultaneous equations methods in family research: A comment. Family Process, 25, 881-882.
- Litman, T.J., (1974). The family as a basic unit in health and medical care: A social-behavioral overview. Social Science and Medicine, 8, 495-519.
- McLaughlin, S.D., & Otto, L.B. (1981)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716.
- Meister, S.B. (1989). Health care financing, policy, and family nursing practice: New opportunities. In C.L. Gilliss, B.L. Highley, B.M. Roberts, & I.M. Martinson (Eds.), Toward a science of family nursing (pp. 146-155).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Moos, R.H. (1974). Family environment scale.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oos, R.H., & Moos, B.S. (1976).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s. Family Process, 15, 357-371.
- Murray P.B., Zentner, J.P. (1993), Nursing Assessment and Health Promotion, 5th ed. Appleton & Lange
- Oliverim M.E., & Reiss, D. (1984). Family concepts and their measurement: Things are seldom what they seem. Family Process, 23, 33-48.
- Olson, D.D. (1986). Circumplex Model V 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Ransom, D.D. (1984). Random notations: The patient is not a dirty window. Family Systems Medicine, 2(2), 230-233.
- Rogers, R.H. (1983). An introduction to the family development schema. In R. Rogers (Ed), Family interaction and transaction. The developmental approach (pp. 9-21).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chumm, W.R., Barnes, H.L., Bollman, S.R., Jurich, A.P., & Milliken, G.A. (1985). Approache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amily data.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12-122.
- Sigafoos, A., Reiss, D., Rich, J., & Douglas, E. (1985). Pragmatics in the measurement of family functioning: An interpretive framework for methodology. Family Process, 24, 189-203.
- Speer, J., McLane, A., White, M., Bierpr, A., King, J.M., Buckwalter, K.C., Lasky, P., & Lederman, R. (1985). Collaboration and the research proces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 32-39.
- Thomas, R.B. (1987). Methodological problems in family health care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65-70.
- Thompson, J., & Bubolz, M. (1986, October). Energy in the family system: Meaning, usage and assum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Research and Theory Workshop, National Council of Family Relations, Dearborn, MI.

Theompson, L., & Walker, A. (1982). The dyad as the unit of analysi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889-900.

Uphold, C.R., & Strickland, O.L. (1989). Issues related to the unit of analysis in family nursing researc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1(4), 405-417.

Verran, J.A., & Ferketich, S.L. (1987). Exploratory

data analysis: Comparison of groups and variabl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9, 617-625.

Wakefield, R.A., Allen, C., & Washchuck, G. (Eds.). (1979). Family research: A source book, analysis and guide to federal funding (Vol. 1). Westport, CT: Greenwood Press.

White, J.M. (1984). Not the sum of its parts, Journal of Family Issues, 5(4), 515-518.